



5년

사회적경제박람회 성공 개최 '손 맞잡다'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음 4월 2일)

제373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광법 개정... 전주, 광역교통체계 구축 '속도'

시, 수도권·도내 지역 연결 사통팔달 역할론 제시
광역도로·철도·BRT 등 교통기반사업 국비 지원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을 획기적인 기회로 삼아 수도권과 도내 지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 역할론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주시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중추도시인 전주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크다.

전주권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같은 교통생활권에 속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대도시권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연스럽게 도와 도를 잇는 도로 교통망으로 이어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시는 전주 북부권 예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고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죽고개로 교통확장을 추진해 사람과 자원의 통행을 빠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 반월에서 완주 삼례, 익산 용례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전주 효자에서 완주 이서, 김제 용지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이 광역도로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을 통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광역 BRT 구축, 광역버스 도입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과 밀접한 교통망 사업들도 우선순위로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우범기 전주시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개통되면 광범위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라 남전주 IC와 모악로 연결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해당 구간과 연결되는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지하차도 설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인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간선도로, 광역버스, BRT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이 구축되면, 도심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에서 익산·완주·김제 등으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동 시간 단축과 도로 이용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전주권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넓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지역 간 연계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육, 의료, 문화, 산업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교통 접근성 개선은 전주를 기업의 투자처로서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을 본격 발굴하고, 전주 대도시권 범위가 조속히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북자치도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전주권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대광법을 기반으로 광역교통망 사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의회는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수소산업 '한걸음 더'

도, 과기부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공모 선정
국비 포함 총 240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이퓨얼(e-Fuel)의 원료물질인 고에너지밀도 고상 합성원유의 전주기 생산 실증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퓨얼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얻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탄소중립연료로, 전기차 전환이 어려운 항공, 해운, 국방,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구축하는 이퓨얼 생산기술 기반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전해 수소와 산업단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에너지 밀도의 고상 합성원유를 생산한다. 이 합성원유는 정유 공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항공유, e-디젤(합성 디젤), e-가솔린(합성 휘발유) 등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9개월간이며, 국비 186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20억원, 민간부담 19억원 등 총 240억원이 투입되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군산대 등 산·학·연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2023년 11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군산대학교, 수요기업들과 함께 사전 기획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료나 소재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

/이만호 기자·군산=이재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전국 1위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대상지 확정 결과, 전북은 10개 시군 82개 지구에 총 35억원(국비 28억원, 지방비 7억원)이 반영돼 지난해 18억(국비 14억원, 지방비 4억원)에 대비 194%가 증가한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피

전국 최다 국비 확보... 도, 가뭄대비 용수개발 본격

10개 시군 82개 지구 대상 간이양수장 설치·저수지 준설 등

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공공관정과 간이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을 개발하고,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해 영농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

전북은 발작물 재배 지역과 논 타작물 전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전년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최대 규모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28일 현재, 전북 도내 저수지 2,169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84.2%로, 평년 대비 106.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북은 올해 농업용수 안정 공

급을 위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외에도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11억), △다목적 농촌용수개발(85억) 등 총 9개 사업, 322개소에 약 1,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퇴적물이 높은 저수지 21개소에 56억원을 들여 30만 톤의 여유 저류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가뭄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농업용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Great Iksan

2025

익산 서동축제

2025 IKSAN CITY SEODONG FESTIVAL

2025 IKSAN CITY SEODONG FESTIVAL

2025년 5월 3일 토 - 5월 6일 화

개막식&퍼레이드 2025년 5월 3일 토 중앙체육공원

메인행사 2025년 5월 4일 일 - 5월 6일 화 익산서동공원 일원

주최·주관 익산시 익산문화관광재단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은행 NH농협은행 원광새마을금고

UNESCO

세계유산지정문화유산

UNESCO World Heritage Site